

惠崗(崔漢綺)思想에 나타난 디자인意味分析 (I)

An Analysis on Design meaning observed in Choi Han Ki - Philosophy

조재경

이화여자대학교 정보디자인과

Cho Jae Kyung Dept. of Informat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문제의 발단

디자인: 傳統思想과 道具主義의 一元化

해강사상의 틀

과학사상의 체득경위

'질서'규명의 철학적 방법론 : 氣學

지각정보론

기계권장론 (重商重工主義)

기학적 도구론

맺음말

참고문헌

중심어: 최한기, 디자인, 기학, 도구론

디자인: 傳統思想과 道具主義의 一元化

인류의 문명이 탄생된 이 후 디자인행위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도구로 실현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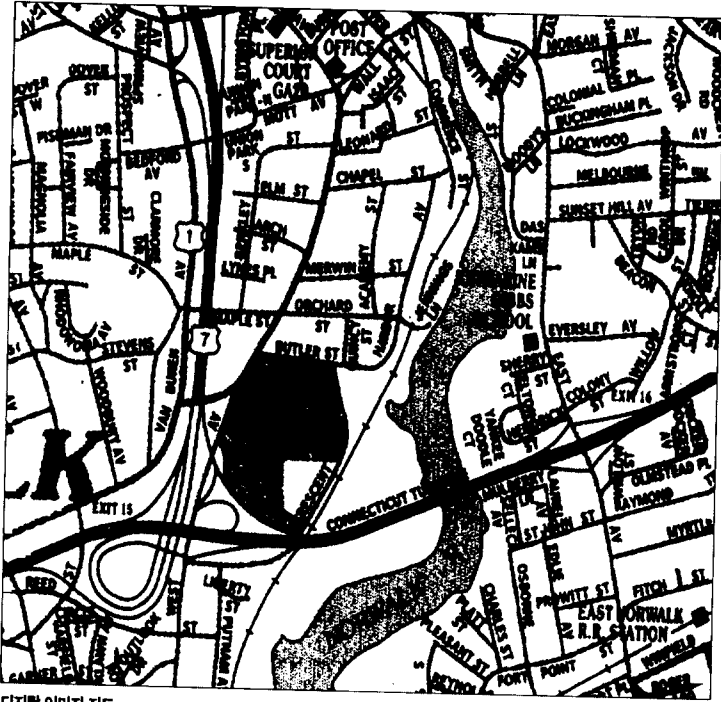
17세기 이전을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였던 시기로 본다면 자연과학사상이 대두된 이래 인간은 자연을 도구로 극복할 수 있는 대립의 세계로 삼치시켜 놓았다. 동서의 도구관은 여기서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두고 출발하였으며 19세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서구 선진산업국가들은 확대재생산의 기반구축을 위해 서세동점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탄생시켰다.

산업화사회란 도구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선과 악이 있을 따름이고 최고의 선은 최고의 실용가치를 지닐 때 실현되었다.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러한 믿음은 도구화된 틀에서 스스로를 더욱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는 논리로 발전되었다. 이것은 마치 絶對音感에 의해서 지각된 소리가 표준음계(동양의 5음계, 서양의 7음계)라는 틀을 거쳐 전달될 때 비로소 도구적 가치를 지닌 홑으로 완성되며 이러한 체계가 전제되어야 협연이나 오케스트라와 같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 가능해 나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도구주의적 사고는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ue)로 二元化된 개념을 영원히 공유할 수 없는 자체적 결함을 안고 있다. 그것은 첫째 아날로그의 현상세계를 디지털적 시각으로만 인식하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디지털의 속성이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가치를 지닌 도구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드(grid)의 세계는 도구의 효용을 가능하는 잣대로 과학의 상징이기도 하다. 격자(格子)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계획도시에서는 정방형(square)적 질서가 최고의 '善'이자 '用'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반면 정원형(circle)에 도달하기 위한 그리드의 취용가치는 차선이나 악이 될 수도 있다. 일찌기 동양의 철학은 이와같은 도구주의적 관점의 취약성을 간파하고 본질적 가치에 접근하려는 방식의 탐구에 치중하였다. 19세기 조선사회를 지탱해 온 세계관은 서구산업문명의 이식과정에서 과도기적 반응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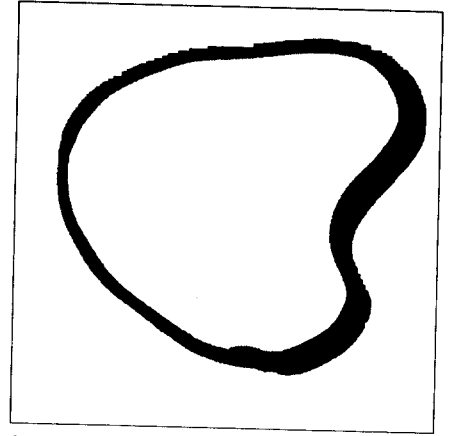
17세기 부터 19세기 말 까지 학문적 신사조를 이루었던 실학사상은 유가적 전통관념의 틀 속에 과학정신, 도구문명의 합리성과 서구 사회사상을 수용한 독특한 논리를 전개시켰다. 그러나 실학자들이 받아들인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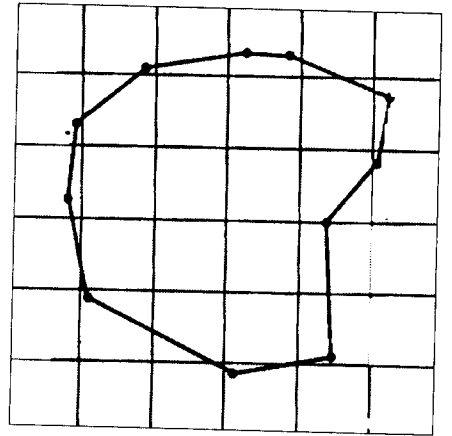
다지털 이미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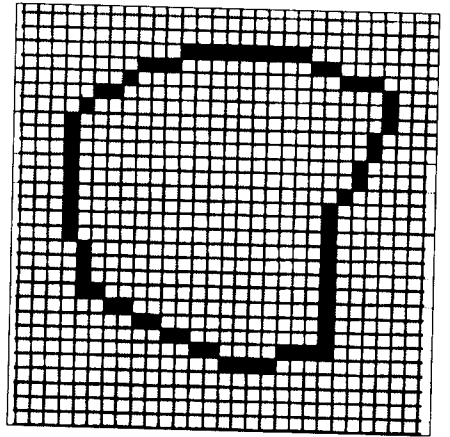
아날로그 이미지 지도



A



B



C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미지의 상관도

C단계에서 그리드의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욱 아날로그에 근접하게 되는 반면 B보다는 A쪽의 이미지에 가깝게 된다. digitizing의 발전방향은 궁극적으로 완벽한 아날로그화를 추구한다.

구과학의 합리성이란 이미 존재하는 이치를 적절한 형질에 부여한 가시적 증험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통 유가사상이나 노장사상에서 볼 수 있는 초자연적 절대주의가 그렇게 된 까닭(所以然)을 물어서 답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쇄된 신비주의에 치우쳐있다면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실학의 학문적 자세는 고증학적, 경험적 인식방법이 도입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같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고도의 학문적 기량을 발휘했던 전통사상의 맥이 금세기 산업문명의 도구철학으로 발전되지 못한 요인을 규명하고 오늘날 전통공예나 디자인정신이 극히 단말적인 기술과 솜씨로 전락되어버린 지난 100년 간의 사상적 허약성을 어떻게 회복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통사상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과학기술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인간의 감성탐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듯이 탈산업화의 트렌드는 동양사상의 豫知로 환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전통사상이 견지해 온 물질과 정신세계의 균형이란 바로 인간, 도구, 환경의 유기적 조화 속에 가장 질서있게 문제에 접근하려는 사유방식 즉 디자인으로 대변될 수 있다. 디자인은 도구주의적 인식체계 하에서 가장 예리하게 감지하고 가장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것을 창의적 형태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여기서 전통사상과 디자인이 왜 접목되어 재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혜강사상의 틀

최한기는 현상에 대한 검증없이 절대진리로 단정하려는 전통적 도가사상과 초자연주의적 관조자세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막연한 관념의 허구성과 신비주의적 자세에서 벗어나 서구의 자연과학이 규명한 자연과 인간, 도구의 물리적 이치와 현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발견된 운동원리를 전통사상에 대입시켜 인간, 도구, 환경의 실체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법칙과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가를 밝히고 그러한 경험과 추측을 통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事物과 도구의 形質을 예시하였다.

조선초기 건국이념이자 통치철학으로 사회의 명암을 조절해 주었던 성리학은 후기에 이르러 체제유지를 위한 사상논쟁으로 변질되었고 시대적 변화에 상응한 사회구제이념으로 발전되지 못한 채 虛學으로 퇴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은 심도있는 사유와 철학적 잠재력의 축적으로

혜강의 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독특한 시각으로 문제를 조망할 수 있었던 사상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淸으로부터 유입된 서적을 통하여 서구의 자연과학사상과 새로운 도구(기계)의 제작원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자연법칙과 물리의 상관성을 통해 전통사상이 추구해 온 궁극의 이치를 비교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혜강은 전통 유가사상과 이기론적 사유방식에 자연과학사상을 수용하여 事物과 현상의 형성체계를 탐구하였다. 혜강은 우주를 중심으로한 영원불변의 절대주의로부터 인간중심의 세계 즉 事物을 통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감각의 세계를 중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추측하고 터득한 우주의 질서와 법칙, 즉 기의 운동이치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도구(器物)의 제작이나 일의 생성원리를 자연의 제 현상과 심성의 조화로 보고 일통하는 원리로 해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기', '추측', '통'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혜강은 산업화 이전의 시기로부터 탈산업화사회에 대비한 도구의 철학을 일관성있게 예시함으로써 디자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그 본질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선형하였다.

과학사상의 체득경위

최한기(1803-1877)는 19세기 실학과 후기의 백과전서적 연구업적을 남긴 독자적 인물로 현재까지 발굴된 1백여권의 저술과 연구분야로만 보아도 그의 학문적 관심과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惠崗'은 최한기의 號로 서울 남촌창동(남대문 부근)에 있던 자택의 堂號로 쓰였던 '惠崗幽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저술 '儀象理數'(1839)에서부터 혜강을 그의 필호로 사용하였다.

그가 살던 시대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급변하던 시기로 내부적으로는 선말의 정치기강 해이, 사회제도의 문란으로 민중봉기와 개혁적 신사상이 끊임없이 대두되었고 천주교의 전파로 왕권과 전통유교관에 회의가 일게되었던 시기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개항을 앞두고 국가적 혼돈에 처해 있었다. 특히 시장개척을 위해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침이 서구 기계문명 앞에 무기력함을 노출하게 되자 '中華思想'에 가려진 主從의 思想界로부터 벗어나 조선의 민족 자각운동이 일기 시작하였고 쇠국이라는 미봉책에 조선의 국가적 안위를 의지했던 시기이다.

최한기는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조건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32세 때 자비를 들어 '만국경위지구도'를 판각하였고 34세 때 자신이 저술한 '기축제의'가 북경 인화당에

서 간행되는 등 뚜렷한 관직없이 여유있는 생활을 누려온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그와 그의 측근에서 중국무역과 깊이 관계된 활동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경로로 최한기는 중국의 신간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가 탐닉한 서양의 자연과학과 문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전 서적의 氣化에 미진한 것을 뒤의 서적이 더 밝혔고, 뒤의 서적이 더 밝히지 못한 것을 지금의 서적이 다시 더 밝혔다. 지금 서적을 갈구하는 뜻이 그 전 서적을 구해보려는 마음보다 훨씬 더 한 것은 그 반쪽만 보고 나머지 반쪽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를 모르는 사람은 서적을 貪求하는 性癖이라고 하나, 나를 아는 사람은 협력해서 구해주기를 마지않을 것이다. 氣測體義 明南樓收錄

최한기는 서구의 자연과학서적을 탐독하므로써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관한 독자적인 시각을 확립했고 서양의 과학적 지식이 그의 氣哲學에 예증과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했다.

동방사람들의 저술은 거의 진부한 것을 주워모은 것이 많고 氣化의 언론이 없으며, 간혹 기화에 언급하여도 대체가 忽略하고 小節이 모호하여 실용을 힘쓰는 사람에게 취택되지 않는다. 神氣, 形質을 모르고서 政教, 학문을 수행한 것이 거의 천여년이 되어가는 데, 그 동안 귀신의 설이 攘奪하고 허무한 학문이 혼란시켜 널리 통하는 길을 막았으므로 運化가 투철하게 밝혀지지 못하였다. 氣測體義 明南樓收錄

그러나 서구의 지식이나 중국의 지식이 서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으므로 서로가 쓰임새있는 부분만을 취하여 취사된 것 가운데 상호를 충족하는 공분모적인 요소에는 공론과 천도가 따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보이지 않는 '질서'로 규정하였다.

'질서'규명의 철학적 방법론 : 氣學

理氣철학의 이론으로서 理의 철학(氣보다 理를 근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철학)과 반대로 理보다도 氣를 근원적이라고 하는 철학이 氣의 철학이다. 氣는 理에 선행하고 理는 氣에 적응하여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역경에서는 '형이상인 자는 이것을 道라 부르고, 형이하인 자는 이를 氣라 부른다.이 구의 해석에 대해서 주자학에서는 道를 理로 생각했으므로 전자는 형 이상의 것 (형이상, 즉 형을 초월한 세계에 속하는 것, 형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 것)이 道이며 형이하의 것(유형의 세계에 속하는 것, 형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氣(즉, 物)이다.' 기의 개념은 양명학이

나 주자학과 같이 이기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존재론으로 거론되기 이전부터 만물의 생성주체로 인식되어왔다. 또한 기의 개념은 인간의 몸을 다스리는 원질로서 그 치료와 처방에도 적용되었으며 서화나 조각과 같은 창작물의 예술적 심도와 생동감을 측정하는 데도 기의 의미가 통용되었다.

최한기의 철학적 관심은 우주의 형성과 운용질서인 기(神氣)의 운화를 해명하면서 동시에 신기의 다양한 양상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데 있고 우주와 인간, 인간과 사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소통시켜 일관시킬 수 있는 이념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개 천지와 인간과 만물의 생성은 모두 기의 조화에 의한 것',

神氣通, 卷 - 古今人經驗不等 天地人物 乃一神氣之造化也

'천지에 기없는 공간이 없고 기와 질은 기의 의취아닌 것이 없으므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기아닌 것이 없다. 神氣通, 卷 - 天地無無之空, 器質無非氣之凝聚, 則耳聞目見言論行動 潛思默運, 無非氣也

천지의 누적된 기가 능히 행성들을 실어날라서 물화를 베풀고 기계 중의 당기고 미는 힘이 능히 화부의 증기를 굳게 묶어서 큰 배를 몰아가니, 신기의 공용은 크기로는 광박하여 비길 데 없고 세미하게는 터럭에도 통한다. 기선을 움직이는 증기기관의 원리도 기의 작용이라 하였다. 물은 불과 성질이 같지 않지만 기에 의해서 운용되는 원리는 마찬가지로이므로 형질에 의한 관찰 결과는 달라도 기화의 쓰임새는 같은 것이다.

또한 도구의 형태도 기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 원리와 쓰임새가 가장 진실한 형태로 접근된 상태를 말한다. 기는 형질과 운화의 활동으로 기화를 이룬다. 형질이란 글자의 뜻과 같이 사물의 현상과 형태를 구성하는 매개체이고 운화는 기화를 추진하는 활동체이자 과정이다.

화륜에 나무 숲을 쓰지 않고 기를 덥혀 화력을 얻는다면, 예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참안해 내어 백성의 利用厚生에 있어 기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어찌 후세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만약 신기, 형질의 운화를 예전에 없던 말이라고 하여 업신여긴다면 수백년 이래로 천하의 현지가 실측하고 경험하여 민생의 일용에 도움이 되고 역상이 점점 밝혀지는 유익함을 폐기하는 것이니.....

해감이 기계의 작동원리로 부터 발견한 기는 대체로 자연과학사상의 발아기에 발견된 자연의 법칙임을 알 수 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자연물은 성장번식의 연속성을 추진하는 intrinsic forces와 그 형질의 외부적 특성을 결정지워주는 상대적 환경조건 즉 extrinsic forces에 의

해서 그 형태가 결정지워진다. 자연물의 형태는 스스로 순환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이것은 내부의 본질적 속성과 외부로부터의 작용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균형은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만 존속된다

(Peter Pearce & Susan Pearce, Experiments in Form, VNR.Co., 1980. pp. viii-ix참조)

기화는 균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기(神氣)는 자연의 법칙 또는 질서를 뜻한다. 기의 균형에 수반되는 형질과 운화의 성격은 hardware와 software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어 만약 형질가를 형태,언어,문자와 같이 언어적 기능을 가진 意味素라 한다면 운화기는 그 뜻에 형이 가장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활동하는 意味辨別素에 비유할 수 있다.

해강은 관념적 전통관으로부터 벗어나 과학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유추해내려 하였으나 그 무한한 현상과 기능을 추측과 통으로 해명한 데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현상학적 경험으로 그 합리적 근거를 마련한 신기,운화의 논리도 결국 동양사상의 특성인 전일성에 회귀하였다. 그러나 해강의 인식방법은 디자인체계의 비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해강의 사유방식을 통해 디자인이 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하였다.

- ● ● ● ● Design is Order
- ● ● ● ● Design is Arranging
- ● ● ● All Signs(Nature's Law) are de-signed by Design

지각정보론

이목구비는 추측의 문호요 理氣가 통하는 구멍이다.형색,선악,맛과 냄새를 체험하면 기억을 되새겨 앞일의 조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사람의五官(이,목,구,비,촉감)는 신기가 통하는 기계이며 외부세계와 통하는 도구이다. 모든 정보는 이러한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고(收聚),나가고(發用),머무르(貯藏)는 작용을 한다. 수취단계에서는 수용가치의 변별능력이 주어지나 선악을 보는 기준이나 이미 저장된 정보에 의해서 그 판단이 달라진다. 저장의 단계에서는 관심의 유무에 따라 저장가치를 선별하며 기억과 함께 작용한다. 발용단계의 특성은 상대적인 것으로 수취 또는 저장된 색깔,냄새,말(언어),맛의 작용에 따라 반작용한다. 최한기는 기의 운화는 통해 의해서 이루어지며 통은 기와 기의 교섭작용으로 보았다. 따라서 언쟁과 사비의 유발은 자기중심적 작용에 의한 발용의 대립이다.

유형과 무형 비유라는 것은 항상 이미 본 경험이 있는 형태가 있는 물건으로 형태는 있으나 아직 보지 못한 물건을 지도해야, 일찌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일도 그 같은 무리를 촉발하여 깨우치고 일면을 보아 전체를 알게되는 것이다. 人政 卷八 有形無形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비록 형태와 구구의 뉘림을 갖추었으나 자각하는 바는 아직 없다. 경험을 따라서 점차로 지각이 있게 된다. 종을 치지 않았을 때도 소리는 본디 있고 ,마음이 감응되기 전이라도 이가 이미 존재한다. 人政 卷八 知覺在自得

기호학에서는 이러한 지각의 대상물을 sign이라 하였다. 여기서 말한 본디의 소리는 개념화 또는 범주화(sign)되지 않은 소리로서 기에 내재된 理를 말한다. 따라서 의미의 전달은 기의 증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의 증험은 sign으로 수취된다.

사람은 본래 지각이 있다 하더라도 운화의 기에 증험이 없게되면 쓸데 없는 지각이며, 본래 지각이 없더라도 운화의 경력에서 지각을 얻어 그것을 발용하여 운화에 증험하면 이것이 쓸 수 있는 지각이 되는 것이다. 人政 卷八 知覺之根源

‘안에 있는 기를 밖으로 내는 것이 소리이며, 얻은 바 형상을 형용하는 것이 언어다’

‘마음에 감동된 기가 구멍으로 나와 소리를 이루고 ,事理의 湧出하는 소리가 말이되고’ 말이 장을 이룬 것이 글이 되니, 그 말을 듣고 그 글을 읽으면 그 마음에 온축한 것을 헤아릴 수 있다. 싫어함이 간절하여 소리로 발한 것이 뜻이고, 좋아함이 깊어 소리로 발한 것이 노래가 되니..... 일찌기 헤아린 바가 있는 것은 그 후에 비슷한 기미를 만나면 감동하는 것이니뜻을 미루어 마음에 쌓인것을 헤아린다. 推測錄 卷六-마음은 소리로 발한다

이미 저장된 경험은 새로운 수취를 통하여 반작용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일치나 같은 기미를 느끼게되면 감동(sympathy)한다. 이러한 이치로 流行은 감동에서 유발된 동질적 발용이 지속된 현상이다.

- 라 . 미 . 그 . 동
- 미 . 동 . 라 . 그
- 동 . 그 . 라 . 미
- 동 . 미 . 라 . 그

ㄷ, ㄱ, ㅅ, ㅈ, ㅊ, ㅋ, ㆁ, ㄹ, ㄴ, ㄷ, ㄴ 라는 낱자는 그 언어적 기능에 있어서 는 적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지못한다. 또한 ‘동그라미’로

10/6 조합된 낱말이 시각을 통해 인지되더라도 ○를 동시에 기억하지 못하면 '라미그동'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즉 말과 글은 그 언어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 수취와 저장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John F.Pile, Design: Purpose, Form & Meaning중 Communication through Form 참조)

기예권장론 (重商重工主義)

유교사회의 제도적 태두리 안에서 장인의 기예와 창의력은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요소이요 이단으로 배척되었다. 15세기 이전까지는 귀족문화의 용성으로 관료들이 장공인에 대한 대우와 기예의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관에 의해 강요된 수공부역이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전문기술을 고도화시키는 데 일몫을 하게되었다.

조선전기 수공업자들은 사회적 신분(노비, 양인, 천인의 세 계층)에 있어서 제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공업노동부역과 군역까지 부담해야 하는 수탈의 대상이었다. 봉건적 관청수공업제의 말기에 이르러 그나마 무기생산을 위해 장인에게 부여했던 말직의 벼슬제도마저 폐지되고 관리의 부실로 인해 관청수공업장에 속한 장공인 들의 도피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장공인의 처지를 비관하고 기술전수를 꺼려하여 관청에 배속된 주요 수공업장에 장공인의 이탈이 속출하였다.

관사에서 필요하면 기술있는 사람을 소문을 듣고 데려가서 관청일이라고 하여 일을 시키고는 값을 적게주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세를 내는 가안 내는 가에 관계없이 기술이 있다는 말만 들으면 장공인을 데려가 강제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권세와 재산이 있는 양반집에서도 그것을 본따 함부로 일을 시키고는 값을 주지 않으므로 장공인들은 자기들의 기술이 남에게 알릴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수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품의 질이 조잡해진다. 礪溪隨錄 卷一 田制, 上

또한 "대전후속록" 공전 공장조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직종의 가장 긴요한 장공인 가운데서 결원이 생기면 군대, 보솔, 한역, 관속, 공천을 물론하고 적당한 사람을 이에 충당한다. 아직 기술적 숙련이 없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기술을 전습시키되 기술전습을 부지런히 안할 경우에는 기술전습을 주는 장인과 함께 거역죄로 처벌한다'고 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당시 장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얼마나 심각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서구의 과학기술이 사상의 중심이자 문화의 중심인 명과 청을 붕괴시킨 시점에서 조선은 서세동점의 세계질서를 무시한 채 기술을 사학과 이단으로 배척한 허학적 관료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현실타파의 개혁이

넘어서 실용주의는 실학사상의 모체이다. 당시의 실학과 학자들이 부국강병적 차원에서 기예의 존송과 공장인의 사회적 대우 개선에 치중하였다면 해강은 과학과 예술성을 통한 신기체험이라는 순수학문적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부국적 개국통상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또한 상업, 공업에 종사하도록 국가에서 권장하며 무역을 통해 국가적 풍작이나 흉작에 대비한 수급을 조절하고 잉여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다.

말세의 습속이 공상을 천한일로 여겨 구차하게 밥이나 먹는 무리가 그 일을 경영하도록 맡겨버렸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공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천하게 여기게 되어 버렸으니 用人の 도가 어찌 공상에는 배풀어 지지 않는가. 사람에게서 원래 사농공상이란 한정된 구분이 없는 것이니 오직 조정에서 인품의 귀천을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人政 卷二十五 用人門, 六 工商通運化

1852년 미국에 의한 개항을 계기로 일본이 성공적 개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항 초기에 맺은 불평등조약을 대등한 통상수교로 전환시킨 진보학자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금세기 서구의 기적은 가져다 준 산업화. 일본이 오늘날 산업사회의 선두대열에 올라서게 된 유일한 동양국가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강의 사상은 세기를 넘어선 豫知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재예를 성취한 사람이면 등용하여 존송하고 기이한 제작을 창시한 사람이면 반드시 썼으며그러나 실용을 심분 취하여 쓰지 못하는 것도 오히려 근심할 것이 못되고 인재를 심분 모아 등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말로 진실로 걱정해야 할 바이다. 참으로 인재를 수용함에 모든 방법을 다하여 우리나라의 있는 바를 가지고 서양에 자뢰할 바가 없게 되면, 실예의 취용에 있어 모두 질실하여져서 서양의 습속한 바가 모두 우리의 쓰임이 될 것이다. 推測錄 卷六 東西取捨

기술과 창의력에 눈뜨지 못하면 서구의 물질문화가 모두 우리의 생활과 의식에 채용될 것을 예측한 그는 전통 유가의 시대착오적 사회관과 그 인식이 금세기에 이르기까지 잔존하고 전통기예의 우수성이 현대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계승, 발전되지 못한 채 서구의 문화와 혼용되어 버리게 된 현실을 산업화 이전에 경고하였다.

기학적 도구론

최한기는 도구(기물)의 제작이나 일의 생성원리를 자연과 심성에 일통하는 원리로 해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추측과 기, 신기, 통의 개념을 도입

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최한기의 도구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의 개념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신기의 운화는 천하가 같이하는 것 일 뿐 아니라 ,만사.만물에 있어서 도 시종이 조리와 수미의 맥락이 일체를 이루므로 ,한 모를 흔들면 네 모가 절로 움직이고 ,한 사람이 화평하면 만 백성이 응해가니 , 천하가 같이하는 것으로는 이에 견줄만한 사물이 없다. 氣測體義 明南樓收錄

선악은 사물을 수반해야 선악의 형상을 찾을 수 있고 사물은 신기,형질이 조화되어야 선악의 형질을 볼 수 있다. 氣測體義 明南樓收錄

도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쓰임이 있으니 , 그 용도가 있으면 비록 옛 사람이 제작한 것이 없더라도 후세에 반드시 그 도구를 제작할 사람이 있다.(推測錄 卷六 經典理心之器) 발을 가는 쟁기나 음식을 익히기 위한 솥에도 제각기 합당한 용도가 있으나 시대에 따라 그 형태나 재료,제작방식이 달라진다.다만 도구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용자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기용은 아무리 교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다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미를만한 계제가 있으므로 ,혹 전대사람이 만든 것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만든 것도 있고 , 혹 기의 움직임을 살펴 그 법칙을 본 받아 기물을 만드는 것도 있는 데 , 물을 끌어서 불을 만드는 유가 이것이다. 혹 천상을 모방하여 의기를 제작하기도 하는 데 , 이러한 기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비록 신통한 것 같지만 ,진실로 그 까닭을 규명하면 자연 추측할 수 있는 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길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게 된다. 推測錄 卷六

무형의 이에 대한 말은 비록 미묘하다고 해도 실제로 철저히 규명하기는 어렵고 ,실용이 있는 기구는 비록 자잘한 기예라고 하지만 이를 많이 징명할 수 있다..... 무릇 기용의 학문은 민생의 일용과 흥작에 보탬이 있는 것으로 ,한갓 법식이나 규규 만을 알아 수치하고 제작하여 생활에 의뢰가 되는 것은 공장의 말단적 기예일 뿐이지만, 형상이 있는 기구를 따라 형상이 없는 이치를 징험하고 형상이 없는 이치를 미루어 형상이 있는 기구를 제조하여 ,천하의 이익을 성취하고 정미한 이치를 징험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의 의무이다. 사람 가운데도 자연 현우혼명 등 천만 가지로 다른 그릇이 있고 ,물질 가운데도 강약청탁 등 각각 다른 그릇이 있으니 , 천지인물의 그릇을 배워 천지인물의 그릇을 사용하게 되어야 참다운 기용의 학문이다. 천지인물의 그릇을 미루어 금석토목의 그릇을 헤아리면, 자연 서로 발명되는 보탬과 변통하는 도리가 생긴다.

推測錄 卷六 器用學

설득의 기를 득하려면 말은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입언한 것이 중을 얻으면 천하가 모두 듣기를 원하고 제작한 기구가 용도에 적합하면 천하가 모두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같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윤 및 일상의 상행과 민생의 도구는 천하가 같은 것이어서 말을 세우면 듣기를 바랄 것이며 일의 편리함에 따라 사용하는 데 힘을 덜어주는 기구를 제작하면 보는 사람도 기뻐하고 보지못한 사람은 보기를 바랄것이니 이것은 일도 같고 사용도 같기 때문이다. 천하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모두 이것을 깊이 궁구하여 알면 참시하는 것을 내가 모방하는 것이 자못 많을 것이고 또 내가 참시한 것이 저와 부합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신기의 운화체계는 이러한 질서에 도달하는 이치이다

대저 격물궁리를 공부한다는 사람은 기수를 자질한 말단이라고 여겨 연구하여 알려고 하지 않으며 아울러 추측의 의기까지 소홀하게 여기니 이처럼 형이하의 기를 버리고서야 어찌 형이상의 이치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는가. 推測錄 卷六 無形之儀氣

만물을 이루는 것으로 말하면 ,물건에는 형질,재료에 있어서 강유,정추가 나누어지며,자양하여 성취하는 데에 활삼, 이둔이 있으며 ,운화하는 때에 따라 용사에 각각 마땅한 것이 있으나 모두 기화에 따라 성하고 쇠한다. 사람이 만물을 다루는 데는 오직 제조하는 법식이 기수에 맞아야 하니 ,수용에 편리한 것은 자연기수에 맞고 완둔한 것은 기수에 맞지않는 것이다. 氣測體義 明南樓收錄

대저 신기가 우내에 충만하여 만물을 화육하는 데 ,형질의 운화하는 신기가 있어 인물이 살아가는 자뢰가 되어 천하에 이 기를 벗어나는 사물이 없다. 인간에는 기의 영상을 조별하는 것이 있는 데 ,도라는 것은 기의 유행을 형용하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은 인도의 기를 조화하는 것이고 의라는 것은 사물의 기를 마름질하는 것이며 ,성이란 곧 신기에서 품구한 것이고 ,리란 곧 신기에서 추측한 것이다. 氣測體義 明南樓收錄

東洋哲學의 특성은 일종의 秩序로 還元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과 도구 그리고 환경의 순환체계이자 법칙으로 도구사회가 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

디자인의 의미는 이미 과학과 예술의 통합영역으로부터 인접분야에 내재하여 미래학적 탐구방식으로 인식되고있다. 그것은 디자인의 속성 상 과학적 검증에 의해 객관성을 확보해 내기도 하지만 창의와 감각의 조율에 의해 균형을 이루면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미래학적 디자인 사고란 동양적 사유방식을 축으로 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객관화해가는 작업이다. 혜강사상의 커다란 흐름은 東道西器, 東西取捨이며 학문의 유형은 질층주의적 주기론이다. 혜강의 저술은 동양의 사상을 디자인논리로 재해석하는 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혜강의 저술 중 극히 한정된 자료(국역본)에 의존하였으므로 그 심도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으며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관적 해석에 치우쳐버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혜강연구의 초보적 작업으로 앞으로 진행될 전통사상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각도로 디자인의 의미에 근접해 나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 1) 최한기, 國譯 人政 (민족문화추진회, 1980)卷—卷四
- 2) 최한기, 國譯 氣測體義 (민족문화추진회, 1980)卷一, 卷二
- 3) 최한기, 明南樓叢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1)卷—卷五
- 4) 류형원, 國譯 種溪叢錄 (충남대학교, 1972)
- 5) 금장태, 한국실학사상연구(집문당, 1987)
- 6) 한국실학사상논문선집(불함문화사)권이
- 7) 小野澤精一, 福永光司, 山井湧, 氣의 思想 (원광대학교, 1987)
- 8) 홍희유, 朝鮮 中世手工業史 研究(지양사, 1989)
- 9) 변화하는 시대와 철학의 과제, 한민족 철학자대회1991' 과학기술문명과 프라그마티즘', 소홍철, pp.203-214